

연 중 제 5 주 일

기도서 P. 342

제 1 독서 (욥 기 7, 1-4, 6-7)

제 2 독서 (고린전 9, 16-19, 22-23)

복 음 (마 르 1, 29-39)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치유와 의사

활인규 신부

동지가 지난지 벌써 두 달이 다 된 탓인지 서산 하루의 해가 한 시간쯤은 길어지고 햇볕이 제법 따듯하다. 오래지 않아 양지바른 곳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한 일이다.

요즈음 반도체공학이니 유전자공학이니 하여 코끼리만한 돼지가 태어나고 해바라기 줄기에서 벼이삭을 거두어 들일 날이 오리라고 한다. 요즈음과 같은 심한 동절에도 일류병원에는 병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가 정말 병을 고치는 것일까? 가령 외과의사가 위암 환자의 상한 부분을 잘라버림으로써 위암이 치료되었다 하자. 위의 환부를 잘라내고 양 끝을 서로 봉합하는 것까지는 외과의사가 하는 일이지만 잘라낸 끝부분에서 새 살이 나와서 마주 붙게 하는 일은 의사의 분야가 아니다. 상한 부분을 떼어 버리고 두 끝을 잘 꿰매어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조직이 나서 한살이 되게 하는 일은 인간인 의사의 영역을 넘어선 조직세포의 특이한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재간들은 조물주가 조직 세포들에게 주신 기 능이며, 이런 훌륭한 기능을 가진 조직 세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사람인 의사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 이 원리는 외과의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내과나 기타 어떤 과에도 적용된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환자에게 쓸지라도 환자가 먹은 약이 소화기로 들어간 다음 흡수하는 일을 장이 하지 않든가 또는 화학 작용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농작물의 성장 과정에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씨앗을 심었을 뿐 움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크고 성숙하는 일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만드신 흙과 태양과 물과 바람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도 하느님, 병든 생명을 완전케 하는 힘도, 영원히 사는 길도, 하느님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다.

<삼례 천주교회 주임신부>



사형과 무죄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에게 1심 공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가운데, 본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자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자백의 객관성 결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지라 알가 왈부하고 싶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경악의 단계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라 잘못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허리와 가슴에 멍이 들고 손목의 뼈가 빠지고 허리운동이 어려운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난해 여대생 살해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대학생의 한 마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실, 금방 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잡아매는 사람을 보면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끈질긴 인내가 없으면 큰 소리와 발길질이 오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벌을 주게 되는 과정에서는 성인다운 인내가 있어야 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한 사람에게 인간적 처지에서 벌을 주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그 직을 성직으로 알고,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일방적인(관계) 죄인을 만들지 말자. 힘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모두, 비록 “아무라도 죄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망정,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자.

숲 정 이 산책



M. B. W.의 소개(1)

정 주 북

M. B. W. 는 (Movement for a Better World-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의 머릿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로써 달리는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M. B. W. 의 창시자는 이태리 태생의 예수회 회원인 리 까르도 롬발디 신부님이다. M. B. W. 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사랑의 십자군>으로 발족하여 1952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M. B. W. 라는 이름을 주어 주시면서 교회의 공식 운동으로 인가하였다.

M. B. W. 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의 쇄신과 현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적응을 모색하고, 다양한 구성 안에서 형제적 사랑으로 하느님을 재발견하며 함께 생활함으로써 체철허 한다. 단순한 연수회가 아니고 생활을 통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목사회이다.

M. B. W. 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깊게 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공동체이신 하느님과과의 관계에 눈뜨게 한다.

M. B. W. 의 내용은 오늘의 세계에 눈을 돌려 시대의 정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개인적인 회심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마음을 축진케 한다.

M. B. W. 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68년이고, 전주에서 실시된 것은 1974년 연초에 서울팀을 초청해서 젊은 이들을 위해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그 해 1월 중순에 주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에서 각 교구의 주교님과 신부님, 평신도 남녀가 각각 한명씩 참석한 가운데 목사회가 실시되었다. 3월에는 광주에서, 앞으로 목사회를 지도하게 될 팀을 위한 목사회가 있었다. 그 후로 전주팀이 구성되어 2박 3일 코스로 5~6년 동안 가톨릭 센터에서 거의 매월 실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침체를 맞아 목사회가 2~3년 동안 중단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팀의 계속적인 연수가 따르지 못했고, 2박 3일로는 충분한 사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전주교구의 목사회 부활이 절실히 요구되던 차에 새로이 팀 구성을 하고, 그동안 발전된 목상 주제를 익혀 금년 1월에 군산 팔마성당(52명) 목사회를 가톨릭 센터에서 가졌었고, 이어서 교구 단위(40명)의 목사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앞으로는 3박 4일 과정으로 매월 1회씩 가질 계획이다. 전에 목사회에 참가한 분도 몇번이고 다시 참가할 수 있다.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아 본당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의 참석을 기대하면서 팀의 부단한 연수를 다짐한다.

<M. B. W. 한국 추진회원>



농촌 교회(공소)를 살리자!

전 자 석

금년은 “본당 공동체의 해”이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하느님의 개입을 선포하셨다. 가난, 질병, 소외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태도는 하느님의 저주와 영벌을 받을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마태 25 : 35-46)

전주교구는 200여개의 공소를 가지고 있는 농촌교구이다. 현재 농가 부채는 호당 평균 1백만원이 더 되고, 농촌에 산다는 것 때문에 장가도 못간다. 생산비도 못되는 농사에 세금을 물어야 하며, 관료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산림 단속을 받아야 한다. 차라리 사람 대접 못받고 살아갈 바에는 도시에 나가 강푹이라도 차야겠다는 것이 요즘 농민들의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되는가? 이는 농촌문제 속에서, 농촌사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일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소는 우리 교회의 모체인데도 현재의 공소는 날로 침체되고 비어 가고 있음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교구 농민회는 농민사목 차원에서 공소 공동체를 다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82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게 잘 짜여졌다 해도 본당이나 공소에서 협력이 안된다면 그 계획은 세우나마나다. 공소사목 부분의 계획을 보면 유능한 공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공소지도자 교육이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1차는 2월 22일~25일, 2차는 3월 8일~11일. 각 3박 4일씩 계획하고 있으며, 공소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공소에서 요청을 받아 30회의 공소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50개 공소의 실태조사와 공소 신자들의 경제적인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지도하며, 협력하고, 농촌생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신앙의 공동체를 생활의 공동체와 연결하여 생활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너희가 여기있는 나의 형제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준 해 것이다.”(마태 25. 40)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리라 본다. 이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고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 공소에서, 우리 본당에서 실천해 보자.

성심치과 의원
 군산시 중앙로 1가 96
 (만수병원 옆)
 ☎ 6917 · 1294
 원장 강기현(원선시요)

◎ 이전개업
진명 유리 상사
 유리공사, 거울, 액자, 각종 선물용
 ◎ 교우님들께 특별봉사
 ※ 전화 주문 배수
 관통로, 서울신탁은행앞
 전화 7467
 손소부(아오스딩) 드림

종교서적 · 성화 · 성물
시 문 서 원
 이리시 창인동1가 235번지
 천주교 창인동교회 정문앞
 노 스틸 라(미숙)

☐ 금 · 은 · 보석 · 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4989 4988

ECCLESIA

□ 교구청 수녀들 교체

주교관 상주(常住) 수녀들의 출퇴근 방침과 성체회 본원 사정에 의해 근 20년을 교대로 교구 사무처에 근무하던 성체회 수녀들이 2월 5일부터 주교관을 떠났다. 어쩌거나 살피왔던 교구 수도회였는데..... 내일의 축복만을 빌 뿐이다.

그러나, 제제에 교구에서는 사목업무의 인신과 보다 효율적인 사무분담을 위해 양국(局)에 새 전담 수녀들을 두기로 하고, 우선 사목국 홍보과에는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수녀(김옥순·막달레나)가 2월 3일부터, 직무에 임했다. 그리고 관리국 당가소임(當家)은 협조회원(Auxilium : 이순남·수산나)이 맡았으며, 경리와 수녀는 잠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쪼록 더 큰 사랑과 배전의 협력으로 교구 발전에 일익 있어지길 빌어마지 않는다.

□ 부안·상관본당 구역장 연수

지역 소공동체 육성과 본당 반 모임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연수회가 각 곳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요즘 부안 본당은 등용리 공소 신자들의 협동속에 지난 28일~30일에 걸쳐 62명의 지도자 교육을 갖었는데, 반회장 연수는 물론 공소 교우들의 적극적인 합심 협력으로 동시에 공소 공동체의 활성화까지 접한 좋은 시범을 보였다.

한편, 후마진 시골 상관 본당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교구에선 선착으로 가톨릭센터를 이용, 34명이 29일~30일 양일간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 교육을 실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흐뭇한 소식이 들려왔다.

본당마다 더욱 알찬 공동체 연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기대해 본다.

□ 82년 동계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1. 일시 : 1차-1982. 2. 8~2. 10일까지(월·화·수) 8일 오후 1시에 접수
2차-1982. 2. 11~2. 13일까지(목·금·토) 11일 오후 1시에 접수
2. 장소 : 전주 가톨릭 센터
3. 대상 : 교구내 각 본당 및 공소 주일학교 교사 및 담당 수녀님
1차-1, 2, 3지구, 2차-4, 5, 6, 7지구
4. 수강료 : 전주, 이리, 군산지역 1인당 8,000원, 그외지역 1인당 6,500원
(1,500원은 교구에서 보조함) 단, 수강료는 숙식비임
5. 준비물 : 미사도구, 세면도구, 필기도구, 어린이 미사책

□ 확인지도 일정

82년도 본당 및 기관 확인지도를 2월 한달에 걸쳐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아 래—

1. 본당 : 김제(2. 3), 정읍(2. 4), 팔마(2. 5), 월명동(2. 8), 창인동(2. 9), 금마(2. 10), 전동(2. 11), 덕진(2. 12), 숲정이(2. 15), 남원(2. 16), 순창(2. 17), 진안(2. 18), 함열(2. 19), 여산(2. 22)
2. 기관 : 가톨릭센터(2. 23 오전), 여학생관(2. 23 오후), 해성학교(2. 25), 성심학교(2. 26), 해바라기 농장(2. 27)

□ 축! 대전 신학 대학교 합격

그리스도를 더 닮는 길, 세상을 복음화 하기 위해 험난하지만 멋있는 사제로의 입문인 신학교(대전신학대학교)에 교구 소속 지원자가 5명 합격되었다.

이로써 대신학생은 재학생 35명, 휴학생 7명, 총 42명으로 증가 된다.

합격자 : 강명구(고산), 오성철(전동), 윤병우(북자), 이수현(황등), 정인웅(파티마)

요심이(444) 김병오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인원 : 일반직 남자 ○명
2. 응모자격 : 가. 만18세~40세 미만, 병역필 및 면제자
취주교 신자에 한함
나. 교졸이상 학력 소지자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졸업 증명서 다. 병적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자격증사본 각 1통
4. 접수기간 : 2. 15~20 17 : 00
5. 접수처 : 당 조함 사무실
(☎ 7522)
6. 전형방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8. 합격통지 : 개별통지 25일까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않음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람

전주 숲정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박해근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 중앙로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513
한 철 재(비오)

신학기 학습품 특별봉사
시 민 노트 사
소방서 뒷사거리
중앙시장 입구
교우집을 찾아 주세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강영욱(로모알드)
☎ ④ 2622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용)
남 베로니카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주니어 아동복
MCGREGOR (남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②4451
유 율 리 안 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사제 인사 이동(2월 2일자): 인수 인계(10일), 부임(13일까지)
이순성 신부—수류 주임에서 대진신대 교수로, 유종환 신부—중앙 수석보좌에서 수류 주임으로
- 1. 가톨릭 센터 최남수 사무장 사임(1월 31일부)
그간의 봉사과 협력에 감사드리고 하시는 사업에 번창있길 빌어 드립니다
- 2. 전주지역 울드레아: 일시—2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매월 둘째 월요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의실, ※ 강의—나는 왜 개신교에서 개종했나

(중앙)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열왕기 상 8장~12장, 마르코 6장~8장
- 1. 유종환 신부님 발령: 수류 본당신부, 13일까지 부임
- 2. 상지회: 2월 10일(수) 오후 7시 성당
- 3. 전례분과위원회: 2월 9일 저녁 7시미사 후
- 4. 조 봉헌: 10시30분 공식미사 중 봉헌예절 있습니다
- 5. 재의 수요일(24일): 금육과 단식, 작년에 받은 성지 가지 2월 21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 6. 교리시작: 안드레아반은 성가대 회합실로 공식미사 후, 부활반—강당, 학생 안드레아반—이층 교리실
- 7. 토요일 특전미사 시간변경: 어린이미사 오후 3시~4시로, 특전미사는 어린이만 해당
어른 특전미사 7시~6시로, 어른만 특전미사 해당됨
- 8. 중학생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학년—이소피아 수녀님, 2학년—박인호 신부님, 3학년—나제노베과 수녀님
- 9. 복사단 후원 감사: 염소아과, 신글라라, 시민약국, 송전제지, 가나약국
복사단—차병열, 강현철, 진명일, 엄성훈, 김진선, 장재민, 이찬기, 엄기장, 안주봉, 김기주, 백승범, 박성용, 김윤성,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0. 병자방문: 9일(화) 병자 계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 11. 축! 대건희 발족: 81년 6월 28일 영계 성인남자 모임, 발전을 빕니다
- 구라주일 특별헌금: 진북동 이희창(50,000원) 익명(2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144,692원(특별헌금 포함)
감사헌금: 이애순(5,000원), 문정임(10,000원) 조로사(30,000원)

-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3. 혼인하실 분들은 1개월 전에 사무실에 신청 바람
- 4. 주소변경, 전화번호 변경(신설) 환자발생·사고발생 시: 즉시 사무실에 연락 바람
- 5. 다음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
②교회구
- 지난주 봉헌금: 374,410원 구라주일헌금: 106,095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2.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30분)
- 4. 성심부회: 11일 오후 2시(서벨다씨 맥)
- 5. 연탄대 봉헌: 구마리아씨 감사합니다
- 6. 초 축성: 오늘 공식미사 중 초 축성식이 있습니다
-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낙균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239,545원 교무금: 144,000원

(숲정리)

전화 ⑦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⑨9567 사도 회장 김수걸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 2. 청년회원 젊은이들의 피정: 7일 오전 8시 접수 마감 회비 1인(2천원)
- 3. 주일학교 후원회 정기총회: 2월 9일 오후 2시
- 4. 예비자교리 안내: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 밤 7시30분. 교리 및 성서연구 많이 참석바랍니다
- 5.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①고재권 ②김중환, 기도—이강노
- 6. 미사안내: 제1조—이경희·권영순·서숙자·정금순·강실례·김상옥
- 지난주 봉헌금: 423,255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이홍재

- 1. 각 구역의 가정방문 일정: 아파트지역—8일(월)·11일(목)·15일(월)·18일(목), 남노송동—9일(화)·16일(화), 중노1동—23일(화)·24일(수), 중노2동—12일(금)·19일(금), 인후동—22일(월)·25일(목), 유아동—26일(금), 오전 9시부터 방문합니다.
- 2. 베소라 성서강의: 9일 저녁미사 후
- 3. 주일학교: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오후 3시 미사 중·고등학생—일요일 오전 9시미사, 성경공부
- 4. 형제회·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5. 예비자교리 시작: 오늘 공식미사 후 부터 교리 시작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②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유아세례: 오늘 8시30분 미사후
-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장우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 5. 레지오 마리에 연총친목회: 2월 8일 저녁미사부터
- 6. 각 구역장·지도위원 모임: 2월 9일 오후 7시30분
- 7. 성가정회: 2월 8일 절순 할머니 대보름 잔치 (많은 할머니 참석 요망합니다)
- 8. 신축기금: 장준수(도민교) 50만원 감사합니다
-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헌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이영태 ②최병래
저녁미사: 해설—정양수, 독서—①범해식 ②김동석
- 지난주 봉헌금: 580,3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현
 사도 회장 양상열

- 1. 유명도 신부님 감사합니다
- 2. 축! 환영: 안철현(이나시오) 신부님
- 3. 부녀회 임원개편: 회장—김경애(테레사)
- 4.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5. 2월 미사안내: 그리스도 모친 회원님들 앞에서부터 성서·성가집 꼭 지참하세요
- 6. 다음주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회합: 오후 2시 각 베레사디움 간부님들 꼭 참석하세요
- 7. 오는 12일은 본당 사무감사일입니다
각 구역장님, 반장님, 사도회 임원님들 꼭 참석바람
- 구라주일 특별헌금: 168,705원
- 지난주 봉헌금: 485,50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미사후 (참가대상—회장단·교무단·감사단·각 위원장)
- 2. 꾸리아 회합(본당 단독 꾸리아): 오후 2시
- 3. 선교분과 회합: 다음주(채수현·유병환·이정선·박수홍·김숙·송길정·박성순·정정주)
- 4. 영세예절(4월 4일): 예비자 교리반에 적극 참여바람
- 5. 봉사분과위원장 추천 바람: 안분도씨 서울전환관계
- 6. 성모회 정기총회: 2월 9일 오전 10시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55,145원 교무금: 156,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홍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 1. 자모회 총회: 2월 8일(월) 어머니미사 후, 임원개편